

# 민주·국민의당 당내 경선 싸고 '파열음'

### 민주 토론회 탄핵전 1회 등 9회 이재명 "더 열어야 공정" 반발 국민의당 경선을 곳곳 마찰 孫·千 "모바일 배제"...安 난색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당내 경선을 둘러싸고 파열음이 나는 등 팽팽한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민주당에서는 후보자 토론회를 두고 캠프 간 파열음이 불거지고 있어 향후 레이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총 9차례에 후보자 토론회를 열기로 결정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선고 전에는 한차례만 개최하기로 한 것을 두고서 후보 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는 이 같은 토론회 횟수에 대해 '정치권이 탄핵에 집중해달라'는 민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토론에 가장 강한 후보임을 자부하며 탄핵 결정 전 적어도 두 번의 토론회는 열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이재명 성남시장측은 강력 반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지지들과 만나 "너무 하지 않나. 화가 난다. 명색이 후보인데 개무시당할 것"이라며 "이렇게 해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할 것 같아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 측은 경선 룰 불이행 여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토론회 질문 순서 등을 조정하기 위한 대리인 회의에도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진영도 온도차는 있으나 당의 결정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읽힌다. 안 지사는 선관위 발표 전 순전에서 지지들과 만나 "탄핵심판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당에 매번 규칙을 촉



文 홍보영상 촬영 '화기애애' 2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하긴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후보들의 정견이 자유롭게 토론될 기회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반면, 문재인 전 대표 측은 당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태도다. 문 전 대표 측은 탄핵심판 선고 전에는 되도록 탄핵 이슈에 집중하자는 뜻을 은연중에 밝혀왔다. 이에 당내외에서는 선관위의 결정이 결국 전문(전문인)에게 손을 들어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미묘한 긴장감이 조성되고 있다.

국민의당도 대선후보 경선 룰 협상에 돌입했지만, 순조로운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안초가 만만치 않다. 안철수, 손학규, 전정배 등 각 후보 측에서는 큰 틀에서의 오픈 프라이머리(개방형 원

전국민경선제)를 시행한다는데 큰 이견은 없지만, 세부 룰에서는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우선 손 전 대표 측은 '모바일 투표'를 일괄 배제하고 100% 현장 투표를 통한 후보 선출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 전 대표 측도 모바일 투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며 손 전 대표 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손 전 대표 측은 또 미리 선거인단을 구성하지 않고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처럼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와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다. 전국 순회경선도 10회 이상으로 잡는 등 경선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안 전 대표 측은 손 전 대표 측의

이런 제안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대표 측은 경선 룰의 조건으로 본선 경쟁력과 민심과 당심의 정확한 반영, 흥행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모바일 투표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되, 손 전 대표 측이 문제 삼고 있는 투표의 비밀성 등을 보완해 공정성 시비를 피할 방안을 제시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각 후보 측은 이번 주에 협상을 계속해 오는 28일까지는 합의된 룰을 완성한다는 목표지만, 여러 쟁점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으면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安 '자강' vs 孫·千 '연대'

###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연수회...연정론 놓고 신경전 팽팽

국민의당 대선후보 경선 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천정배 전 대표가 지난 24일 충남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전국지역위원장 연수 행사에 참석, 당원들 앞에서 연대·연정론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손 전 대표가 "현재 국민의당 사이즈를 가지고 누가 '너희가 이 나라를 맡아라' 그러겠냐"라며 "우리는 앞으로 스스로를 열어야 한다"고 연대를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연립정권·공동개혁정부가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게 돼 있다"며 "대선 전에도 그런 가능성을 담아놓는 건 아니다. 선거 연대를 완전히 배제할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천 전 대표도 "180명의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큰 대안을 만드는 연합·공동정부를 만드는 게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며 "합리·개혁적 보수라면 함께할 수 있다고 본다. 자유한국당은 시대착오적 수구세력이지만 바른정당은 좀 다르다"고 손 전 대표 주장에 맞장구를 쳤다.

반면, 안 전 대표는 "아무리 국회의원

이 많아도 제대로 된 사람을 뽑지 못하면 이번 박근혜 정부처럼 된다. 아무리 150석 넘는 그 당의 대통령을 뽑아도 나라 망가지는 것 아니냐"며 "또 국회의원 수만 갖고 뽑는다. 자신감을 가져달라"고 되받아쳤다. 또 "연대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않아 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거나 선거에서 승리해도 모든 경우에 여소야대(與小野大)"라며 "대통령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함께 정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가 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손 전 대표는 "대선을 두 번이나 해봤는데 결국에 가면 정적이 다 똑같아진다. 국민이 바로 저 정책 때문에 '누굴 찍는다, 안 찍는다'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최대한 캠페인의 숫자와 기간을 늘리고 역동성을 늘릴 때 전체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당의 사이드를 키우는 일이 시작될 것"이라며 "그것이 안 되면 국민의당은 대선에서 지든지 아니면 소수당으로 연립정부에 뛰어들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종인·정운찬·유승민 내일 경제토론회

### '3지대' 연대 가능성 관심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정운찬 전 총리,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28일 경제토론회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다.

김 전 대표와 정 전 총리는 '제3지대' 연대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인물인 만큼 이날 토론회가 연대 가능성을 타진하는 자리가 될지 주목된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26일 여의

도 당사에서 열린 유 의원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한국경제 길을 묻다-김종인이 묻고, 정운찬·유승민이 답하다' 토론회를 28일 개최한다고 공약했다.

김종인 전 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정운찬 전 총리와 유승민 의원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날 토론회는 정 전 총리가 지난달 31일 여·야 대선 주자에게 긴급 경제 현안 토론을 제안한 데 따른 것으로, 여·야 대선 주자 중 유 의원의 참여 의사를 밝혔다. /연합뉴스

# 여야 3당 개헌 협공...강·온 양면 대응

### "약용 안돼" 강경 대응 하면서도 내달초 내부 개헌파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당 안팎의 비문(비문재인 진영) 세력의 '개헌 협공'에 강온 대응을 통한 타격을 모색하고 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은 물론 당내 개헌파로부터 개헌에 나서려는 동시 압박에 처한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른 당의 '개헌 포위'에는 "정략적 시도"라고 일축하면서도 당내 개헌파 의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

해 '개헌 의총'을 열기로 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대선주자들도 여야 3당의 개헌 압박에 대해 "정치적인 공학으로 개헌론을 언급하는 것은 안 된다"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추미애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다른 정당들이 불리한 대선 판세에서 변화를 꾀하려고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냐"

며 "대선용 개헌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지난 22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논의하는 자리에 1당을 빼고 합의안을 실효성이 있느냐"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민주당이 121석을 확보한 만큼 '집안 단속'만 확실시 한다면 다른 당에서는 개헌 의결 정족수 200석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도부는 당내 개헌파의 요구

는 최대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하며 내부 균열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를 위해 개헌파 의원들이 국회에서 위크업을 연 뒤 개헌 의총을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 3월 초순에 의총을 열어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함으로써 개헌파의 이탈을 최소화하는 한편 '민주당은 개헌에 소극적이다'라는 외부의 비판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다가올수록 개헌파들의 움직임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당분간 개헌을 둘러싼 당내 힘 싸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민주 광주 북갑 지역위원장 강기정

### 광산율·여수율은 보류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지역위원장에 강기정 전 의원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용섭 전 의원이 신청했던 광산율 지역위원장과 3명의 후보자가 경쟁한 여수를 지역위원장 결정은 보류됐다.

민주당은 24일 오전 제73차 최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으로 광주·전남 지역 5개 지역위원회 등 전국 16개 지역위원회 위원장 인준안을 의결했다.

광주는 2개 지역위원회, 전남은 목포, 여수, 고흥·보성·장흥·강진 등 3개 지역위원회를 심사했다. 이 중 광주 북

갑과 목포, 고흥·장흥·강진 지역위원장 등 3곳만 결정됐다.

광주 북갑은 강기정 전 의원이, 목포는 김홍천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고흥·보성·장흥·강진위원장은 신문식 민주당 전남도당 상임고문이 뽑혔다.

광주 북갑 지역위원장에는 강 전 의원과 정준호 변호사가 함께 공모에 신청했으나 정준호는 정변호사로 선정 결과에 대한 입장을 내고 "복수 신청자가 있으면 경선에 의한다는 당헌과 당규상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최원일기자 cki@kwangju.co.kr

##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 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보1억5천/월5백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70㎡ 현 신발대리점 입점 매 20억원(보5천/월9백만 포함)
- 월계동 3층 상가점포 500㎡ 매 8억5천(학원, 독서실, 임대가)
- 선암동 1층 상가점포 102㎡ 매 5억원(조정가)
- 나주 혁신도시 1층 상가점포 123㎡ 매 9억4천(조정가)
- 신정동 4층 상가건물 1,000㎡ 매 24억원(보1억6천/월1,100만 포함)
- 수완동 5층 상가건물 750㎡ 매 23억원(1층 약국입점)

상가주택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500㎡ 매 13억5천(보8천/월524만원 포함)
-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00㎡ 건480㎡ 매 9억8천(보6천5백/월400만원 포함)
- 상기 외 다수 물건 보유, 상담현영

토지

- 화정동 대지 967㎡ 매 35억원
- 화정동 대지 980㎡ 매 49억원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높음, 남향)
- 담양군 남면 학선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억원

상가임대

- 장덕동 4층 빈 상가 830㎡ 4천/월450만(매매가)
- 장덕동 키즈카페(자동차체험형) 300㎡ 5천/월365만
- 수완동 대형 패밀리레스토랑 1200㎡ 3억/월1,500만

매물 접수, 상담 현영

☎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고려수지침을 연구하시면 평생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정통 서금요법·고려수지침 강좌

정통 수지침은 고려수지침으로 1975년에 유래우 박사가 처음으로 개발 창시하였습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고려수지침은 현재 10개 국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서금요법이란 수지침 외의 서암뜸, 기마크롬, 서암염돌기, 이구법, 금봉 등을 말합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한의약이 아니고 한국의 새로운 의학입니다. (고려수지침 강좌는 영어, 일본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히브리어, 중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자신과 가정, 단체의 평생 건강관리에 필요하고 질병을 속히 낫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부작용, 후유증, 위험이 없습니다.

고려수지침·서금요법은 자원봉사에 좋으며 외국 이민, 귀농, 농어촌 생활에도 꼭 필요합니다.

우측의 책자를 구입하시면 무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배울 수 있고, 월간 서금요법을 발송해 드립니다.

유래우 원저 / 4×6배판 / 508면 / 정가 60,000원

유래우 원저 / 4×6배판 / 367면 / 정가 53,000원

**(주)고려수지침** ■문의처 : (02)2231-3000 ■통신구입처 : (02)2233-0841~2  
■인터넷 쇼핑몰 www.seokeumshop.com (고려수지침학회중앙회를 검색하세요.)  
■광주지회 062)224-5343 ■전남지회 062)525-0001 ■광주동부지회 062)227-3407 ■광주북부지회 062)512-2170  
■광주남부지회 062)673-8492 ■광주평산지회 062)956-2237

※타 지방에서는 전국의 160여 지회를 이용 바랍니다.